



IBKS Spot Comment

화학/정유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RA

장성호

02) 6915-5661

cpszoo9080@ibks.com

[울촌화학]

올해 2분기,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최대 수출 달성 전망

2분기 서울시 동작구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액 급증

울촌화학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동작구의 2025년 2분기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액 (HS 코드 3921902000, 7607209000 기준)은 1,606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28.8%,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2,85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동사의 2분기 2차전지용 파우치 필름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동사가 2차전지용 파우치 필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2022년 이전에는 서울시 동작구의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 실적은 미미했다.

세계 최초 183μm 고성형 파우치 필름 양산 성공

동사는 세계 최초로 183μm 두께의 고성형 2차전지용 파우치 필름 양산에 성공했으며, 현재 이 규격에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름 두께가 두꺼울수록 배터리의 대형화가 가능하며, 진동, 충격,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대한 내구성이 강화되어 장기적 신뢰성이 향상된다. 이에 따라 동사의 183μm 고성형 파우치 필름은 ESS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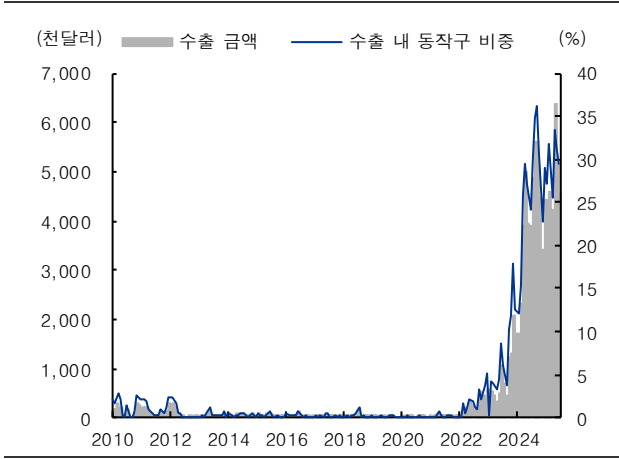
고객사의 ESS 사업 확장에 따른 동반 성장 전망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파우치형 LFP 배터리의 조기 양산을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SS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2025년 17GWh인 북미 ESS 생산능력을 2026년 30GWh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SS용 파우치 필름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되는 183μm 규격 배터리 파우치 필름은 동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 샘플 납품을 시작으로 2025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능력 확충으로 2030년 파우치 매출액 7천억원 이상 가이던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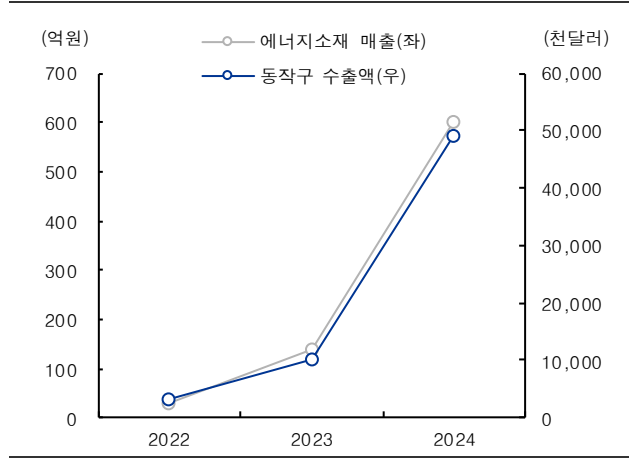
동사는 신규 평택 포승 공장을 2025년 4월 완공하며 배터리 파우치 필름 생산능력을 기존 3,000만 m²(안산)에서 7,000만 m²으로 늘렸고, 내년 포승 공장 추가 증설을 통하여 3개 라인(총 생산능력 1억 1,000만 m²)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전자소재부문 배터리 파우치 매출액 가이던스를 2030년 7,000억 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포장부문을 포함한 2024년 전사 매출액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림 1. 서울시 동작구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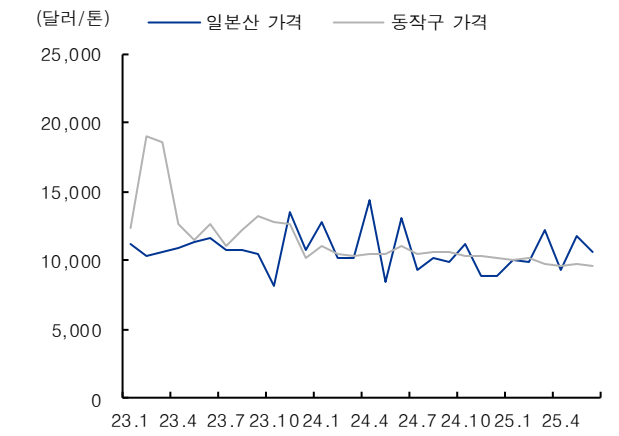
자료: KITA, IBK투자증권

그림 2. 울촌화학 에너지소재 매출액과 서울시 동작구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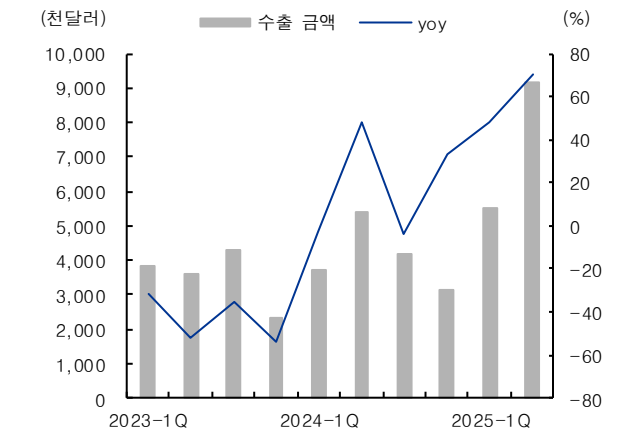
자료: 울촌화학, KITA, IBK투자증권

그림 3. 서울시 동작구/일본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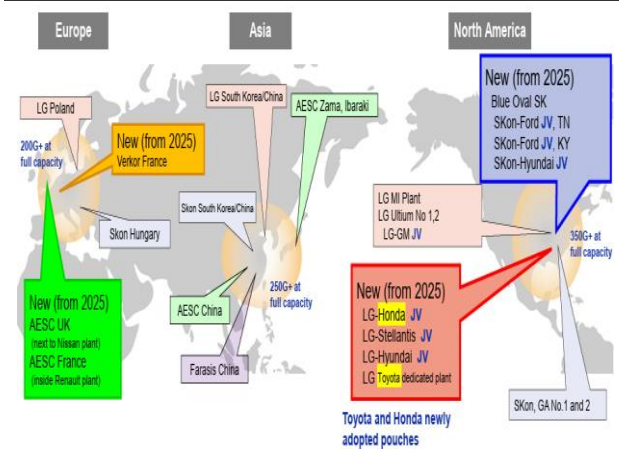
자료: KITA, IBK투자증권

그림 4. 미국향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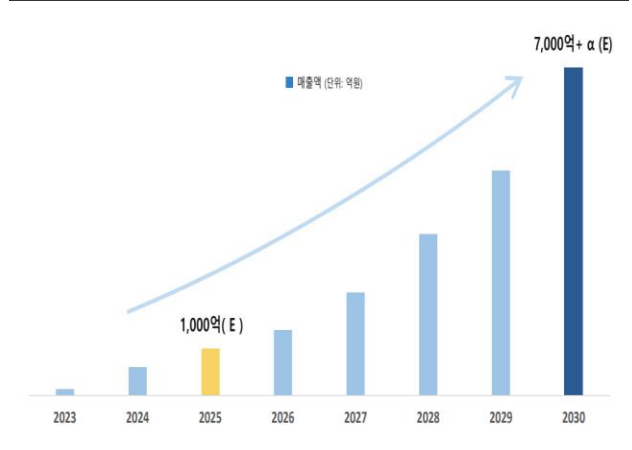
자료: KITA, IBK투자증권

그림 5. 세계 주요 배터리(파우치) 플랜트



자료: DNP, IBK투자증권

그림 6. 울촌화학 전자소재부문 배터리 파우치 2030 비전



자료: 울촌화학,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